

“교실로 들어온 통일교육” 국립통일교육원, 실감형 콘텐츠 ‘통일동화숲’ 시연

- 서울 30개 초등학교서 순차 시연... 신규 콘텐츠도 곧 공개

-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(이하 ‘교육원’)은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‘통일동화숲’ 시연을 8월 20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. 첫 시연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.
 - ‘통일동화숲’은 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감형 콘텐츠로,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
- 교육원은 이번 시연에서 ‘통일동화숲’에 포함된 이야기 중 『남떡북떡! 쭉떡쭉떡!』을 활용한다. 또한, 올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 『풍! 풍! 풍! 다시 만나!』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 시연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시연을 위해, 교육원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, △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△콘텐츠 활용의 파급력 △자치구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교를 선정했다.
 - 한 회차 수업은 약 40분간 진행되며,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사가 수업을 운영한다. 수업은 △통일교육 △통일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시청 △실감형 콘텐츠 체험 △퀴즈 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, 9월에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서울시교육감도 직접 체험에 참여한다.
- 국립통일교육원장은 “이번 시연은 실감형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어린이들이 통일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미래 세대의 통일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	책임자	과 장	정지하 (02-901-7160)
		담당자	주무관	안소연 (02-901-7171)